

김정일 행정법 강의계획서

“효과적인 행정법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과정”

“법학의 기초부터 심화이론까지 행정법의 전체 흐름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전공자 및 입문자를 위한 강의!”

■ ■ 담 당 김 정 일 변호사

- 사법시험 제40회 최종합격
-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전북대 행정법 특강 강사
- 법무법인 백범 구성원변호사

■ ■ 강의일정 2017년 2/7(화) ~ 2/23(목), 총 15회 ※ 월~토 강의

■ ■ 시 간 [오후 실강반] 1시40분 ~ 5시10분(70분 강의 후 10분 휴식)

■ ■ 강의교재 ▶ 쉽게 읽는 행정법(김정일 저, 월비스 간, 서점구매)

쉽게 읽는 행정법은 교수님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가 어려운 비전공자나 입문자를 위하여 행정법을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저자의 20년간의 강의경험과 변호사로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진행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쉽게 읽는 행정법은 법학의 기초부터 행정법의 심화이론까지 빠짐없이 서술하여 법학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에 대한 전체의 틀과 기준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체계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원론강의를 수강하신 후 이 책을 여러 번 복습하신다면 행정법전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여 향후 행정법 시험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월의 예비순환 강의는 교수님 교과서(홍정선 저 _ 행정법특강 / 박균성 저 _ 행정법강의)와 쉽게 읽는 행정법으로 진행됩니다.

■ ■ 강의목표 이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 행정법의 성격상 법학개념과 용어 등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한 노력만큼 점수를 획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첫 단추로 행정법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론강의는 행정법 전반의 주요내용을 법학개념과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여 확실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강의입니다.

원론강의목표는 행정법 전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행정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원론강의는 최대한 쉽게 진행하여 수험생들의 행정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행정법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강의합니다.

수험생들은 원론강의 수강 시 복습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강의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강의경력과 실제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이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또 행정법이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해야만 점수가 잘나오는 과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론강의를 통해 행정법의 탄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론강의(2월)

강의교재 : 쉽게 읽는 행정법,(김정일 변호사 저)

강의내용 : 법학의 기초 및 행정법의 기본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

공부방법 : 행정법기초입문서를 빨리 읽어서 다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이라는 전체 숲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결국 세세한 내용보다 전체 체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 입문서를 빨리(예컨대 제 경험상 한시간에 20~30페이지) 읽어가며 회독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강사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 예비순환(3월초 개강: 홍정선 저_오후 실강/박균성 저_저녁실강)

강의교재 : 행정법강의(박균성 저),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강의내용 : 원론강의에서 이해한 행정법의 기본내용에 보다 심화된 내용을 추가하여 행정법기본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하여 행정법 이론의 전반을 완성할 수 있는 강의. 일주일에 한번 복습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강의.

공부방법 :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독이란 기본서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읽는 것을 말합니다(예컨대 제 경험상 한시간에 5~10페이지 정도).

■ 1순환(8월초)

강의교재 : 트리니티 행정법요론(김정일 변호사 저)

강의내용 : 예비순환을 통해 완벽히 이해하게 된 행정법전체의 흐름이 실제 사례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고 일주일에 2회 50점 복습모의고사를 통해 답안작성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는 강의

공부방법 : 트리니티 행정법요론은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기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주요내용들을 빠짐없이 요약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많은 합격생들이 인정하듯 이 책만 반복하여 보시면 행정법 고득점을 달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1순환의 목표는 위 행정법요론을 1순환 강의기간동안 3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도중에 풀이한 사례문제 등을 다시한번 본인 혼자 풀어보고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순환(11월중순)

강의교재 : 행정법연습(김정일 변호사 저), 최신판례정리자료(제공)

강의내용 : 일주일에 3회 50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행정법사례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으로 본격적인 사례문제풀이가 병행되는 강의

공부방법 : 예비순환과 1순환때 학습한 행정법 이론을 실제 답안지에 표출해내는 연습에 집중하는 순환입니다. 따라서 강의에서 풀어본 수많은 사례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사례적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야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사례풀이의 감을 정확히 익혀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 3순환(3월말)

강의교재 : 행정법 핵심암기장(김정일 변호사 저), 행정법연습(김정일 변호사 저), 출제가능한 최신판례자료(제공), 판례암기용자료(제공) + 법전

강의내용 : 시험장에서 반드시 써야 될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으로 행정법의 전체 흐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매일 모의고사를 통하여 시험감각을 익힐 수 있는 강의.

공부방법 : 자 이제는 암기의 때가 왔습니다. 여태껏 이해중심으로 공부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표출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표현들을 암기하셔야 합니다(물론 강의때 자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이때는 양을 늘려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라 양을 줄여 핵심내용들만을 무한반복으로 암기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최신판례는 새롭더라도 꼭 이해하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하는 농구선수인 아이버슨에게 어느 외고 고등학생이 쓴 감동적인 편지를 덧붙이겠습니다.

Dear. Allen Ezail Iverson

Hi Allen!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당신의 팬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일 그 자체가 참으로 흥분되고 멋진 일이지만, 그 대상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당신이기에 지금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당신을 처음 본 그 날이 말이죠. 전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어요. 한 때는 당신과 같은 멋진 NBA Player가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 땐 당신을 알지 못했었죠.

중학교 3학년, 바라던 정식 농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학교를 대표하는 농구부의 농구 선수로 뽑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농구화를 사게되었죠. 처음에 내가 살려고 했던 농구화는 아마 당신의 멋진 친구일 Tracy McGrady의 Signature인 T-MAC 2였습니다. 당시 그 신발과 티맥은 최고였거든요. NBA에 대해선 문외한인 저조차도 티맥이란 이름을 얼핏 들어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내 친구가 당신의 신발을 추천 해주었습니다. 그 신발의 이름은 바로 Iverson Playoff Mid 2였지요. 키클로지에 프로페서 K가 최악의 신발이라 평가했던 그 신발.... 티맥과 당신의 신발 중에서 고민하다 결국 나는 엘런 당신의 신발을 사게 되었지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신발의 주인은 어떤 선수일까? 아이버슨이란 당신의 이름 역시 간간히 스포츠 뉴스 등을 통해 들긴 했지만, 그 이름뿐 오늘 날 내게 영웅이 된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당신의 모습은 내게 있어 충격 그 자체였고,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흔히들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라 말들 했지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신장을 넘어서지 못해 농구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70대의 작은 키로 200이 넘는 장신들 사이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을 지배했죠. 1번의 MVP와 4번의 스코어 링 챔피언 2번의 올스타 MVP는 그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 사실은 나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농구는 신장으로 한다는 그 말을, 농구계에서 암묵적 진실로 통용되고 있던 그 말을 당신은 한 순간에 잘못된 거짓 말로 만들어 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내가 키가 작아도 나도 엘런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어요.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란 그 말은 아직도 짧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요. 크로스오버, 점프슛, 레이업 슛, 더블 클러치까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키가 작으면 농구를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영웅인 당신은 이미 그것을 증명해보였고, 이제 내가 그 것을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대회... 너무나 좋았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농구 코트를 밟는다는 것이 내겐 꿈만 같았거든요. 당신의 별명이 적힌 The Answer란 아대를 나의 오른 팔에 차고 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뛸 수 없었죠. 내가 받은 플레잉 타임은 겨우 10분 정도, 주전이 아닌 후보였습니다. 나에게 속공 찬스가 왔지만 나의 레이업 슛은 엘런의 레이업과는 달리 터무니없이 날아가고 말았죠. 좌절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도 나는 패배했죠... 졌습니다. ‘역시 작아선 안 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의문과 괴로움에 둘러싸인 채 집에 와서 축 쳐진 어깨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엘런 아이버슨 60득점 커리어 하이! 달랐습니다. 나의 영웅은 달랐다고요. 다시 한번 내게 용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엘런 당신이 말이죠...

꿈만 같던 농구 선수로서의 삶도 끝이 나고 고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체육관을 그리고 일반인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찾기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비록 반코트 조금 넘을 크기의 올코트 경기장이지만, 벽에 달린 이상한 림이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왔지요 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고, 과대표 선수로 체육대회를 뛰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우리 과의 앤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지요. 전년도 우리과는 예선 탈락을 했던 팀이었거든요. 아무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영웅은 역대 최강이라 불리우는 삭과 코비의 LA를 맞서 18군데 부상을 안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 말하는 그들의 코트에서 기적같은 1승을 만들어냈다고, 그리고 나도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저도 이 경기 보면서 약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 우리는 토너먼트로 펼쳐진 대회에서 결승으로 진출했고, 결승에서 나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나도 앤써라고 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너무나 부족하지만요.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가고, 나는 지금 고3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10대 시기 중 하나라는 대한민국 고3... 그러나 극복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엘런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에 비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니까요. 나의 짧은 19년 인생이지만,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 때마다 나는 언제나 쉽게 포기하는 아이였습니다. 늘 주위 상황을 탓하며, ‘왜 신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불평하기 일수였죠. 그런데 그런 나머지 당신이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의 멋진 모습만을 봤을 때는 당신에게 고생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구요. 그러나 사실 당신은 15세의 미혼모에서 태어났고, 살인 전과자인 아버지를 두었고, 빈민가 하수구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던 그래서 늘 오수로 가득한 방바닥에서 양말을 몇겹씩이나 신고 몸이 불편한 여동생들과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한 가난하고 불운했던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난 수년간 늘 상황 탓만 하며 쉽게 포기해버렸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엘런 아이버슨이란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Passion(열정)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게 없었던 열정이, 지금은 내 삶에 가득합니다.

빈민가의 한 작은 흑인 소년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기적을 일으키며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작은 이들은 그를 보고 용기를 얻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엘런 당신은 내게 있어 단순한 농구 선수가 아닙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엘런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나도 엘런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당신은 10년간 혼을 바치며 뛰었던 필라델피아에서의 추억을 뒤로 하고, 덴버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었고, 좋은 동료를 만난 당신이 단숨에 연승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현재 부상 중입니다. 팀 역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어찌보면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들이 물음을 품습니다. “엘런 아이버슨이란 답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그 지겨운 물음과의 싸움에서 지난 10여년간 늘 증명해왔습니다. 해답이 당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이 챔피언 링이 없다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기적이라고, 팀동료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들의 실력을 저하시키고, 팀캐미스트리를 파괴한다고.... 한번 더 증명해 주세요 엘런! 그들에게 당신이 해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장이 아닌 힙합 스타일,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온 몸에 문신 투성이로 만 당신을 보고 있는 편견 덩어리인 그들에게 나의 영웅 엘런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엘런, 당신은 나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2007년 2월 20일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당신을 존경하는 한 소년이...